

『무정』에 나타난 근대성, 사랑, 성

최혜실*

1. 사적 영역으로서의 사랑의 정립
2. 1910년대, 시민계층의 결혼제도의 형성기 : 학생계층의 형성과 자유연애
3. 이광수의 자유연애 결혼관 : 지식인계층의 정체성 확립의 논리
4. 『무정』의 주제 : 근대 시민계층의 결혼 이데올로기 세우기
5. 결 론

초 록

본고에서는 한국 근대에서 '사랑'이 전시대에 비해 어떻게 변모되고 제도로 정립되는가를 살펴보고 아울러 근대적 사랑의 특징인 '낭만적 사랑'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가를 보았다.

전근대적 사랑은 공동체 윤리로서 법의 차원으로 미분화되어 성립하는 반면, 근대의 사랑의 논리는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개화기와 1910년대에는 전근대의 윤리관을 본질적으로 탈피하지 못한 연유로 '사랑'의 문제가 지식인들의 근대화 추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조선시대 계층은 생득적으로 형성되었고 따라서 결혼제도 또한 이 생득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중매혼, 집안 대 집안의 결혼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개화기 이후 천부인권설의 역설 교육의 보급으로 양반/상민의 계급 구분은 와해되고 귀족적 지위가 후천적 능력에 의해 획득되는 근대사회가 형성된다.

지식인계층은 이렇게 형성되었으며 낭만적 사랑에 의거한 자유연애 결혼은 이들이 채택한 새로운 결혼제도였다. 그리고 이들의 이데올로기를 이론화시킨 대표적 인물이

*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학부 교수.

이광수였으며, 그는 과거 양반들의 성적 욕망의 체제 및 방식, 혈통유지를 위한 혼인과 욕망 해결을 위한 기생계층의 이용을 철저히 비판함으로써 지식인계층에 걸맞는 성적 욕망을 재정립할 토대를 만들고 있다.

이때 사랑은 지극히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남성과 동일한 근대교육을 받은 여성은 결혼 전에는 남성의 연애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존재로, 결혼 후에는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존재로 규정된다. 이 이데올로기는 「무정」에 잘 드러나 있다.

1. 사적 영역으로서의 사랑의 정립

사회적 측면에서 근대화는 사회체계(social system)와 생활세계(life world)의 분리로 나타난다.¹⁾ 그런데 자본주의의 전개에 따라 경제규모가 점점 커지고 국민국가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면 또다시 사회체계는 팽창하고자 하는 욕구를 점점 더 강하게 가지게 된다. 체계가 분화되면서 복잡화로 귀결되고 그것이 체계의 적응능력의 향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할 때 체계가 팽창한다는 것은 곧 사회체계의 합리성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체계의 합리성이란 개개 하위체계가 수행해야 할 기능적 요건을 보다 잘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구적 목적 합리성을 주로 지칭한다. 반면 생활세계는 분화함에 따라 의사소통 합리성이 나타난다. 생활세계에서 의사소통적으로 행위하는 주체들은 생활세계의 지평 속에서, 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상호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하에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해나간다.

그런데 이 체계와 생활세계는 다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생활세계는 사적 생활세계인 근대 핵가족과 공적 생활세계인 공공성·공론장으로 구분되는 한편 체계에서의 사적 영역은 공식적 자본주

1) Jeff Weintraub and Krishan Kumar(edited by), *Public and Private in Thought and Practice*(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p.35에 정리되어 있는, 여러 사상가들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의의 경제체계이며, 공적 영역은 국가 행정체계로 구별된다. 가족이라는 사적 생활세계의 구성원인 개인은 노동자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서, 사적 체계인 자본주의 경제와 교환관계를 갖는다. 교환관계의 매체는 화폐이다. 노동자는 경제체계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소비자는 경제체계가 공급해주는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화폐를 지불한다. 공적 생활세계인 공공성의 영역에서, 시민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참정권을 행사하며 여론 형성의 담지자가 됨으로써 행정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행정체계는 행정적인 조직을 통해 시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활세계와 체계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런 분화과정에서 한 인물이 공적 영역에서의 시민과 사적 영역에서의 개인이라는 이중의 역할을 하게 되며 사랑은 개인의 사적 영역, 개인의 판단의 문제로 분화된다.

근대 이전에 사랑은 인륜의 형식으로 제도화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부부유별이나 의리의 차원으로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전통사회에서 법과 도덕이 미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 도덕은 점점 탈제도화되어서 내면적인 태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단지 인격체계와 관계를 가지는 반면, 법은 외부로부터 부과된 힘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근대의 강제법은 법관의 윤리적 동기와는 무관한, 그리고 법에 대한 추상적 복종에만 의존하는 하나의 제도가 된다. 전근대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저지른 자는 그의 행위가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된다. 특히 이때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규범을 위반한 데 대한 비난이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정신상태를 오염시켰다는 측면에 강조점이 두어진다. 신성한 질서를 침해한 데 대한 벌은 속죄의 성격을 띄게 된다. 반면 근대에 이르러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은 스스로 책임지고 행위하는 주체의 의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평가되고 처벌도 잘못된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행위 결과 때문에 생겨나는 손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²⁾

이런 맥락에서 전근대적 사랑의 감정은 공동체의 윤리로서의 법의 차원으로 미분화되어 성립하는 반면, 근대의 사랑의 논리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근대 이전의 간통은 공동체의 질서를 어기고 천륜을 위반한 데 대한 속죄의 의미를 강하게 띄는 반면, 근대 이후에 이것은 개인의 잘못, 혹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좁혀진다. 그런데 개화기 문화는 이런 면에서 전근대의 윤리관을 본질적으로는 전혀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 과도기적 양상은 1910년대까지도 계속된다.

2. 1910년대, 시민계층의 결혼제도의 형성기 : 학생계층의 형성과 자유연애

19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 유학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당시 국내에 제대로 체계를 갖춘 학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15년 당시 조선에는 전문학교 제도는 있었으나 대학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 이후 1910년대 말까지 경성 전수학교, 경성 이학전문학교, 경성 공업전문학교, 수원 농림전문학교, 연희전문 등 실용적인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지고 있었다. 1910년 이전에는 독일유학이 주로 정부 주도로 진행된 것에 반해, 1910년 이후의 일본 유학은 사비유학이었다. 또 1910년대까지의 독일유학에 어느 정도 문벌이 있는 양반계층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1920년대는 유학생의 숫자가 늘고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고학생이 늘어났다. 이들은 신문배달, 인력거 차부, 일용 노동자로 일하면서 학비를 벌었다.³⁾ 이는 유학생들의 계층이 1910년 말에서, 1920년대로 가면서 양반중심에서 점차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관립학교 입학생의 출신배경을 보면 1915년에 양반이 43.9%이고

2) Jurgen Habermas(장은주 역), 『의사소통의 사회이론』(관악사), pp.218~243.

3) 김인덕, 「학우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66집(1995.12).

평민이 56.1%였다. 서울 학교의 입학생은 양반이 많고, 평양 지방은 오히려 상민이 많았다.⁴⁾ 일본 유학생은 1913년 현재 모두 669명이었고 관비유학생 48명, 자비유학생 621명이다. 이들은 부농 또는 대지주 그리고 상공업 자본가 및 관료의 자제들로 보면 된다. 대체로 양반층의 자녀들이 많으나 평민층도 만만치 않은 숫자를 이루고 있다. 유학이 관료 등 지배층으로 충원될 기회를 제공함을 감안할 때 교육은 평민층에게 재산의 형성 못지않은 계층상승의 기회라 할 수 있었다. 적어도 같은 학교의, 혹은 같은 지역의 학생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하고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학생계층, 지식인계층의 부상은 당시 사회가 계층중심의 사회에서 기능중심의 사회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근대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볼 수 있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이 시민계급의 등장 및 발흥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근대의 또 다른 특징은 계층적 사회분화에서 기능적 사회분화로의 이행에 있기도 한 것이다.⁵⁾

물론 시민계급의 등장이라는 사회적 전환과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전환과정은 성층화된 사회계층의 적응방식으로서 기능적 사회분화의 전개와 함께 그 의미를 상실한다. 다시 말해서 시민계급의 등장은 기능적 사회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계층일 수 있다. 또 시민계급은 상류층의 지위를 획득하고 거기에 편입되고 싶어하지만, 사회분화의 형식이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계급의 상승이 더 이상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이런 현상은 근대화 초기 한국사회에서 지식인 집단을 분석해 보면 잘 드러난다. 개화기 이후 신교육을 받은 계층이 한 집단을 이루면서 지식인계층으로 부상하여 양반과 상민이라는 귀속적 지위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후천적 능력에 의해 획득되는 지식인/비지식인이라는 새로운

4) 김영모, 「일제하 사회계층의 형성과 변동에 관한 연구」, 『일제하의 민족생활사』(현암사, 1982), p.564.

5) 백승대, 『지식사회학의 새로운 정향과 하버마스의 근대성 논의』,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1996.2), 참조.

분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식인계층은 그 속성장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내에서 분화와 소외현상을 겪게 된다. 그 이유는 첫째, 널리 논의된 바 있듯이 일제 강점기라는 왜곡된 현실에 대한 부적응 현상 및 차별에 의한 소외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또 하나 이런 소외는 지식인 자체의 계층적 속성에서 연유한 것일 수 있다. 생득적 지위가 아니라 교육으로 계층을 획득한다는 의미는 그 사회가 기능에 의해 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그 계층으로의 편입은 상승이나 하강의 의미를 띄지 않게 되는데 아직 지식인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기대치가 상대적 소외를 낳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식인계층의 형성기에는 이 기능적 속성과 생득적 속성이 한꺼번에 작용했던 바, 이 상태에서 자유연애결혼은 동등한 학생집단의 교류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의 계층을 낳는 하나의 수단이 될 가능성을 지닌다. 중매결혼은 당시의 상황에서 철저히 집안 대 집안의 혼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근접성의 원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자유연애에는 계층의 차이가 아니라 가까이 있어 정드는 것, 같은 지역,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녀간의 결혼이라는 가능성이 내포된다. 좀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당시 지식인 남자들이 전 부인과 계층간의 결혼을 했다면, 유학생들끼리의 자유연애는 종래의 생득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했던 우애혼과는 다른, 지식인계층형성에 적합한 새로운 결혼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높은 교육열을 보여 유학과 전문교육을 받은 대지주의 배경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작업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지배권력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돈 때문에 지배계층으로 편입될 수 있었던 평민층이, 교육을 통하여 어떻게 자손들을 권력지배층으로 연결시켰는가를 보여준다.

일제시대 부재지주의 가문은 전체의 73.8%가 양반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상민이며 천민도 있다. 그리고 부재지주는 양반이 68.7%이고 재촌지주는 75.9%이다.⁶⁾ 이들의 자손은 대단히 높은 교육수준을 지녔으며 이들은 오늘날까지 권력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다. 결국 당시 유학생들은 반

이상이 이들 대지주의 자손들이며 여기에 상민층 자손들이 영입하여 조선시대 양반과는 다소 양상이 다른 새로운 신지배계층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혼재된 양상들은 당시 지식인층의 자유연애의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3. 이광수의 자유연애 결혼관 : 지식인계층의 정체성 확립의 논리

1)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결합 : 자유연애와 부부중심의 가족관

『학지광』은 학우회의 기관지로 1914년 4월부터 발간되었다. 1년 4회 발간예정이었던 이 잡지는 논문·소설·극·평론·기행·수필·시 등과 학우회 및 청년단체 활동에 대한 기사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일본경찰의 탄압에 발매금지·반포금지·정간처분을 받으면서도 조직이 해체될 때까지 계속 발간되었다. 『학지광』의 7·8·9호는 발매금지를 당했고 11·16·23·24·25·26호는 미상이다.

편집은 주로 집행부의 핵심들에 의해 장악되었는데 김병로·신익희 등이 초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1910년대의 편집인은 최승구·최승만·이광수·신익희(3·4호)·장덕수(5호)·변봉현(10호)·현상윤(12·13호)·최팔용(14·15·17호)이었고, 1920년대에는 박승철(19호)·박석관(20호)·최원순(21호)·김항복(22호)·이종도(27호 ; 인쇄도담당)·박용혜(29호) 등이 담당했다.

시기별 『학지광』의 논조는 다음과 같다. 즉 1910년대 유학생 내부에서 영향력 있던 필자들에 의해 필진이 장악된 『학지광』에 실린 글은 유학생으로서의 사회적 의무감과 이에 따른 계몽적 내용과 자질함양, 서구문명의 소개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리고 지식인의 사명이 사회문제 일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면서 현실참여에 대해 선전했다.

계몽적 시각에서 김철수는 「신춘들과 신타파」에서 현실문제를 해결하

6) 김영모, 『한국 지배층 연구』(일조각, 1982), p.111.

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타파’할 것을 이야기하고, 최승구는 「너를 혁명하라」에서 인적 혁명(Revolution of Individuality)을 강조했다. 이 가운데 특히 생활을 강조하고 이상보다 행위를 존중할 것을 혁명에 있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식민지해방과 계급해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혁명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당시 東京 내 유학생의 사상의 방향을 선도하던 최승구는 「불만과 요구—瘰癧으로부터—」에서 유학생 일반의 고민이었던 사회참여와 자아 실현 문제에 대하여 사회참여가 곧 ‘자기보존’이라면서 농촌의 자립이 사회적으로 우선 요구된다고 했다.⁷⁾

이처럼 당시 『학지광』에는 유학생의 사명 등이 거론되는 등 계몽주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시문·소설·수필 등 낭만적 시각의 글들이 많이 연재되었다. 당시 유학생들이 문학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들릴 정도로⁸⁾ 잡지에 낭만적 사상이 스며들어 있었다.

참고로 송진우의 글을 살펴보기로 하자. 당시 『학지광』의 편집인이며 학우회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그의 사상은 당시의 유학생의 사상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사상개혁론」이란 논문에서⁹⁾ 종래 조선의 윤리관을 5항목에 걸쳐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 첫째, 유교윤리가 모화사상의 기초가 되었고 평등정치를 구현하는 걸림돌이 되었으며, 둘째, 가부장제 때문에 젊은이들이 뜻을 펼 수 없었고, 셋째, 강제결혼이

7) 「학우회의 조직과 활동」, p.218.

8) 第二次 現今學生의思潮는何如今日은以前보다매우特異한點이有하야實力主義로熱心勉勵하는者 이多하며또한眞實한精神을修養하는風이流行할뿐안이라相愛相扶하는義를尙하니實로今日學生의 思潮는奇特한成績이多하도다然이나小說哲學의趣味를侵하야文弱에流하는弊가行함은 現今學生 의弱點이라는는學理를深究함과時勢의影響으로基風이生 안듯하나子의觀察로言하면 斯國思潮에 同化가된줄로산하노니此가今日大感覺의處라諸己에反求하야活潑한精神과冒險의 行動을務치안 으면大博士가되야노벨상을得한다하여도根本의問題에 대하야는利益됨이少無하고도리어害點이될 이니豈不自覺也오(「일본유학생사」, 『학지광』 6호(1915.7.23).

9) 『학지광』(1915.5).

계급결혼의 악폐를 낳았음을 비판하며 넷째, 실리교육을 해야 하며, 다섯째, 과학실업을 부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셋째 항목에 연애에 대한 절실한 표현이 있는 점이 개화기의 계몽사상과 다른 점이다.

원래 연애는 이론이 아니요 정열이며, 객관이 아니라 주관이라 유시로 빈부의 한계가 무하며 귀천의 계급이 무하며 토지의 원근이 무하며 지식의 비교가 무하니 환언하면 만금의 부가 연애를 횡단할 수 없으며 삼군의 위가 연애를 쟁투할 수 없으며 백옥의 빈이 연애를 변개할 수 없으며 천리의 원이 연애를 쟁탈 할 수 없으며 지식의 력이 연애를 해부할 수 없나니 차는 우주의 신비요 인정의 기미라¹⁰⁾

송진우 등의 이런 생각은 당시 이광수의 논문들에서 더욱 확장되고 강조되어 나타난다. 같은 『학지광』에 실린 이광수의 논문, 「혼인에 대한 관견」에는 혼인의 목적, 조건 등이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먼저 그에 의하면 혼인의 목적은 생식과 행복을 구함에 있고 행복은 연애와 원만한 가정에 있으며, 올바른 연애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戀愛의 根據는 男女 相互의 個性의 理解와 尊敬과 따라서 相互間에 일어나는 熱烈한 引力的 愛情에 있다하오. 母論 容貌의 美, 音聲의 美, 舉動의 美等 表面的 美도 愛情의 重要한 條件이겠지오마는 理知가 發達한 現代人으로는 이러한 表面的 美만으로는 滿足하지못하고 더 깊은 個性의美-即 그의 精神의 美에 恍惚하고사 비로소 滿足하는것이지오. 外貌의 美만 取하는것은 아마 動物의 又は 原始的 愛겠지오. 進化한 戀愛의 特徵은 熱烈한 感情의 引力과 明哲하고 冷精한 理知의 判斷이 平行하는데 있다하오. 가장 잘 敎育을 바든- 即 가장 健全하게 發育한 青年男女의 戀愛은 이리한것인가 하오. 母論 內的要求도 이겠지오-그것이 戀愛의 完成이겠지오. 原始的으로 보면 그것이 戀愛의 究竟의 목적

10) 앞의 글.

이겠지요. 그러나進化한 複雜한 文明과 精神生活을 가지게 된 人類에 있어서는 이 肉의要求는 恰히 第二義인듯한觀이 있지요. 卽論 肉의要求가 不潔하다 함이 아니지요. 靈肉의 合止가 戀愛의 理想이라 하니까, 또靈과 靈의 愛着이 들어야 비로소 戀愛가 成立되는것이라 하니까, 肉의要求를 決코 賤히녀김이 아니지요. 다만 非文明的 戀愛는 오직 肉의 快樂을 渴求하는데 反하여 文明的 戀愛는 이것以外에 (以上인지 以下인지는 모르나 아마 進化한 度를 標準으로 하면 以上이겠지요.) 靈의要求가 있다함이다. 高尚한 精神生活을 가진者는 肉의 寂寞을 感하기前에, 또 그보담 더 熱烈하게 靈的滿足을 求하려고하는것이다. 靈과 靈이 서로 抱擁하여 飽和한 滿足에 達한後에 비로소 肉으로까지 合하여 戀愛가 이에 完成되는것이니 이것이 卽 婚姻이다.¹¹⁾

그가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개성의 아름다움이다. 그는 보편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하는 사랑과 육욕의 사랑을 아울러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근근대적인 사랑의 방식을 비판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근대의 낭만적 사랑의 가장 획기적인 요소는 상대방의 '개성'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타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직위가 높거나 용감하거나 미인이라서가 아니다. 상대방에게서 남에게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어떤 특성이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에 감정적으로 끌리는 것이 사랑의 감정인 것이다. 이로써 종래 선남선녀만이 할 수 있었고 의미 있었던 사랑은 평범한 주인공들의 감정의 교류로 변할 수 있었다. 여기에 단순한 육적 사랑이 부정되고 비판되는 것 또한 낭만적 사랑의 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몇 년 후에 발표되는 「무정」의 청교도적 순결주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의미 깊다.

그리고 또 하나 이광수의 자유연애론이 시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는 것은 그가 주장하는 이런 종류의 사랑이 유교사상의 부정의 일환으로 나왔다는 점이다. 다음은 이광수의 대표 논문의 한 구절이다.

11) 『학지광』 12호(1917.4).

오인의 전습 비판의 제일시(第一矢)는 당연히 유교사상에 향할 것이외다. 이조 오백 년간 오인의 생활을 지배한 자는 유교니까요. 방방곡곡이 공맹의 언(言)을 송(誦)하였고 사사물물(事事物物)에 공맹의 도를 행하여 왔습니다. 사상의 통일이라 하면 이조 오백 년같이 통일된 예는 아마 각국 각 시대의 역사에 드물리다. 유교의 발생지인 중국에는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기타 제자백가의 설이 각각 분야를 점하여 행하였지마는 조선은 오직 공맹지도(孔孟之道)로 일관하였습니다. 전제정치는 정신계에까지 급(及)하여 인민으로 하여금 사상조차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공맹지도의 해석도 정주(程朱)라는 침공(針孔)을 통하여서만 꼭 하게 하였습니다. 왕양명(王陽明)을 통하여 전한 유교는 조선을 쇠하게 하였습니다. 조선의 유교는 실로 우리의 정신의 만반 기능을 소모하고 마비한 죄책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¹²⁾

현재 조선은 과거의 실패와 생활방식을 탈피하여 문명인의 생활방식을 배워야 하는데 이 변화를 위해서는 비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비판은 조선을 오백년간 지배한 유교사상에 집중된다. 특히 결혼제도에 그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무엇보다도 당사자 상호간의 이해나 애정에 의하지 않은 결혼제도, 가문과 가문에 의한 결혼을 맹비난하고 있다.

그는 근대적 사랑의 이론으로 유교의 공동체 윤리에 입각한 사랑의 제도, 가문 대 가문의 혼인을 비판한다. 가문중심의 중매결혼은 양반층이 특권계급으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채택된 적절한 혼인의 방식이다. 이것은 생득적으로 지위가 규정되어 있던 조선사회에서 당연히 채택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혼인제였다. 그러나 1910년에 이르면 한국은 이미 개인이 날 때부터 주어진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판단, 의지에 따라 지위가 결정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 되며, 이에 따라 교육이 새로운 계층형성의 주요 제도로 등장하게 된다. 개화기에는, 인간은 나면서부터 평등한 것이라는 천부인권론을 바탕으로 교육을 기회와 평등을 실

12) 「신생활론」, 『매일신보』(1919.9.6~10.9).

현하는 장으로 생각했으나, 이는 곧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는 계기로 변하게 된다. 즉 일종의 부르주아계층을 유지시켜 주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시험과 학위로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합리화 과정을 통해 고급관료, 경영자, 정치지도자 등 세습적 학교귀족이 탄생한다.¹³⁾

그리고 자유연애 결혼은 이들이 채택한 새로운 결혼제도였다. 그리고 이광수는 과거 양반들의 성적 욕망의 체제 및 방식, 혈통유지를 위한 혼인과 욕망 해결을 위한 기생계층의 이용을 철저히 비판함으로써 지식인 계층에 걸맞는 성적 욕망을 재정립할 토대를 만들고 있다.

애장 없는 부부는 일종의 상행위이다. 고용관계외다. 매음이요, 간음이외다. 이러한 부부의 婦된 자는 그 육체의 노력과 생산으로 夫된 자의 사육을 받는 자요, 婦된 자는 의(衣)와 식(食)과 처라는 명칭을 가지고 장기의 첩과 노비와 생산을 겸한 여자를 사는 것이외다. 아무 정신적 결합이 없거니, 그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뿐더러 애정 없는 부부는 피차에 각각 시시각각으로 일생을 두고 간음과 질투와 증오와 멸시의 죄악을 지으며, 자기에는 부재래(不來)의 일생을 불행중에 보내고 귀중한 자녀와 사회에게는 무고한 악영향을 급(及)합니다.¹⁴⁾

계급이 생득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결혼의 조건이 가문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당사자간의 개인적 감정이 존중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부인은 가문의 대를 잇고 안살림을 꾸려나가는 존재로 규정되고, 개인의 욕망이 기생과 같은 다른 여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은 그 체제에서는 합리적인 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이 위계화된 질서를 만드는 계층에서 이런 방식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교육이 지위를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같은 교육을 받은 계층끼리 결혼하면 된다. 이 경우 군

13) Pierre Bourdieu(최종철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새물결, 1995), pp.114~168.

14) 앞의 글(1919.9.6~10.9).

이 같은 가문의 사윗감, 며느릿감을 찾지 않더라도 학교라는 울타리를 통해 남녀가 자유롭게 접할 수 있다. 어차피 연애라는 것이 근접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접촉이 없는 데서 사랑이 탄생할 이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배경으로 이광수는 육적 사랑을 맹비난하고 사랑에는 ‘정신생활,’ ‘영적 만남’ ‘내면의 미’ 등을 강조함으로써 상대가 자신과 같은 교육을 받은 존재여야 한다는 점의 논리적인 기반을 만들고 있다. 의견이 통하지 않아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같이 신교육을 받지 못한 여인과 사랑이 일어날 수 없다.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가문 결혼을 한 자신의 본부인을 의사가 통하지 않는다고 내친 것이 이 점을 시사한다. 연애는 영육의 조화인데, 구식부인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겨우 육체적 만족만 취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여자와 산다는 것은 인간의 신성한 감정인 연애에 대한 묘욕이다. 이처럼 논리적으로 교육받은 계층과 교육받지 못한 계층이, 즉 조선시대 양반/상민의 구분법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나온 다른 계층이 결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도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광수가 ‘애정 없는 결혼은 상행위요 매음’이라고 치를 떠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반계층의 성적 욕망에 맞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재정립하여 지식인 즉 교육귀족의 계급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논리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계층의 성적 욕망을 사회적 차이를 만드는 엄격한 금기행사방법인 법에 종속시켜서 성적 욕망의 원칙을 정립하고 그것을 정당화시켰다. 개화기부터 지속되어왔던 과부제가 금지의 철폐, 중혼제의 철폐는 바로 근대 이후 신흥계층의 성적 욕망을 제도화시킨 예들이다.

이광수가 조혼의 폐습을 그리도 공격하는 것은 자신의 뼈저린 체험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혼은 중매결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조선 가정의 개혁」에서 생리적 방면, 윤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들어 조혼의 폐해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그의 자유연애론이

단순히 철없는 젊은이의 자유분방한 성윤리가 아님은 그의 보수적인 결혼관에서 잘 드러난다.

혼인은 一種 契約이되다. 契約은 그 原因이나 當事者의 一方이 消滅함을 따라當然히消滅할것이되다. 婚姻은 쉽게 말하면「ㄴ히 살자」는 契約이되다. 이의 ㄴ히 찰자 하였스니 兩便中에 한편이 죽어 ㄴ히 살지못하면 當然히 그 契約은 消滅할것이되다. 古來로 男子에게는 이 眞理를 適用하면서 女子에게는 適用치 아니함은 (그 理由가 아마 子女를 養育함에 있스려니와) 옳치 아니하다 합니다.

그럼으로 貞操는 夫婦雙方이 생존하는 동안에 論할바이아니라 합니다. 그러닛가 妻가 죽은後에 夫가 自由로 再妻할수잇슴과ㄴ히 夫가 죽으면妻가 再嫁할수잇슴것이되다. 近來에 와서 法律를 墨守해야 再嫁하는者를 誹謗하지요. 아직도 再嫁하는 婦人은 先行하는者로 녀기지요. 그래서 男子도 再婚하는 女子를 썬리어 그를 正室로 맞는 것을 羞恥로 녀기시오. 根柢가 깊은 習慣을 一朝에 打破하기는 어렵거니와 이의惡習으로 알지뎨 急速히 고칠 必要가 잇다합니다.

또 近代에 와서 男子의 貞操를 求하는모양으로 女子가 男子에게 貞操함이되다. 至當한 일지요. 國法上으로 보건대 「一夫一婦」는當然한 일이되다. 그러나 朝鮮서는 名義는 一夫一婦라 하더라도 其實은 一夫多妻였섯소. 하나 이것은 婚姻問題에 別로 相關이 업스매 여기는 論하지아니하겠소.¹⁵⁾

그의 말대로 결혼이 일종의 계약이라면 서로 애정이 식었을 때 쌍방이 합의하여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글에서는 이혼·간통·혼전순결 등의 문제는 거론되어 있지 않다. 기껏 과부의 개가 정도만이 아주 혁신적인 듯이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의 이런 보수성은 결혼관계에서 남녀의 역할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最近世에 至하여 更히 男女의 關係에 變動이 生하니, 卽 男尊女卑에 反抗하여 起한 男女平等의 思想이라. 女子도 男子와 同様の 人格을 主張하여 國家나 社會에 對하여 男子와 同等한 權利를 要求하니, 現今世界에 社會의 最大問題는

15) 「혼인론」, 『매일신보』(1917.11.21~30).

資本家對 勞働者 問題와, 女性對 男性의 問題의 二者라 하도록 此問題는 重大하게 되었다. 余는 此에서 男女의 平等을 主張하러 함은 아니나, 朝鮮에도 文化의 程度가 漸次 變함을 從하여 早晚間 男女問題가 重大한 社會問題가 될 것은 豫想하기 不難하다. 余는 彼女權論者와 如히 男女의 平權利論上으로나, 實際上으로 正當한지 否한지를 判斷할 能力이 姑無하거니와, 但 民族發達上 又は 家庭改良上 어떤 程度까지는 女子의 人格을 認定함이 有利할 줄 思하며, 더우기 朝鮮과 如히 家庭에 在하여 女子를 全히 肉慾滿足과 子女生産의 機械로 認定하는 社會에 在하여는 多少間 女子의 人格을 絶對함이 正當할 줄 信하노니, 故로 余는 理論上으로 此를 主張함이 아니라 利害打算上 女子의 權利를 主張함이다.¹⁶⁾

민족발달상 가정개량상 어느 정도까지만 여성의 지위향상을 허용하겠다는 것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종래 대가족제도에서 자애로운 가장이 존재하는 자녀중심의 가정에 필요한 만큼만 여성의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집약의 농경사회가 아닌 근대산업사회에서 가장의 권한이 그리 클 필요가 있지는 않다. 따라서 아버지는 군림하지 않고 자애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되고 가정은 부드럽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띄게 된다. 이광수가 조선의 가장의 권력을 강하게 비난하고, 자녀중심의 가정을 이루자고 외치면서 모성을 강조했던 것은 그가 근대적 가정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2) 모성 중심의 근대 가족

그에 의하면 여자교육은 모성중심의 교육이라야 한다. 여자의 인생에 대한 의무는 남의 어머니 되는 데 있다. 여자의 반생은 어린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으로 보내게 되며, 어린아이는 어미의 품에서 성격의 토대가 잡히는 것이다. 나쁜 어머니 품에서 자라난 아이는 나쁜 성질을 갖게 되

16) 「조선 가정의 개혁」, 『매일신보』(1916.12.14~22).

는 것이요, 좋은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난 아이는 좋은 아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일상 보는 사실이다. 좋은 어머니가 되며 좋은 아이를 길러 내는 것이 오직 여자의 일류에 대한 의무요, 국가에 대한 의무요, 사회에 대한 의무요, 또 여자가 아니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한 나라에서 좋은 국민을 많이 나게 하려면 먼저 좋은 어머니를 많이 만들어 놓아야만 한다. 더구나 우리 나라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있어 민족적 개조가 긴급한 국민에게는 무엇보다도 많은 좋은 어머니가 필요하다.¹⁷⁾

이런 논리하에 그는 오늘날 교육제도가 모성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여학교 교육에 이 점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결국 그에 의하면, 근대사회에서 여성교육은 결혼 전에는 남성의 연애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양과 자질을 위해서 존재하고 결혼 후에는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는 어머니로서 자질을 길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광수의 자유연애론의 실체는 이것이다. 이는 그가 평생 대변했던 근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자기규정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이광수와 허영숙의 연애와 결혼은 그 합리성을 획득한다. 가문 대 가문의 결혼, 즉 우애혼은 생득적 지위를 부인하고 천부인권론을 주장하는 근대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와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부인되어야 하며 이 논리에 의하면 이광수가 전처를 소박하고 '사랑'하는 허영숙을 아내로 맞이한 일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된다. 그리고 허영숙이 결혼 후 헌신적 노력으로 이광수를 보살피고 자식들을 잘 키워낸 것 또한 그의 논리, 그가 속한 계층의 논리, 나아가 근대의 가족의 논리에 맞는 일이다.

17) 「女性中心의 女子教育」, 『신여성』(1925.1).

4. 「무정」의 주제 : 근대 시민계층의 결혼 이데올로기 세우기

「무정」의 주제는 사랑이다. 그가 여기에 필적할 작품으로 「유정」을 내세운 것이 그 중요한 증거이다. 후자는 유부남과 순결한 처녀의 지순한 사랑을 그린 것으로 그가 자부심과 애착을 한없이 가지고 있었던 작품이다. 그리고 명백한 연애소설이다. 그런데 「무정」 또한 명백히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왜 독자들은 한결같이 이 작품의 주제를 근대성, 계몽주의의 입장에서만 보고 「무정」에서 잔소리가 가까울 만큼의 주인공의 사상이 보이는데도 독자들은 그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한갓 통속적인 작품으로 보는 것일까?

여기에 1910년대의 사랑과 1930년대의 사랑의 의미의 차이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다. 1910년대는 자유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정신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의 자유연애는 한갓 개인의 사적인 영역, 심지어는 불륜으로까지 축소되고 말았다. 따라서 「무정」의 시대야말로 사랑과 결혼의 제도화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정립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나타났던 시대였고 「무정」은 이 시대의 사상을 대변하는 축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무정」에서 주인공들의 사랑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작가의 의도와 나아가 당대 소설의 참의미를 짚는 데 중요한 일이 된다.

1) 연애 배우기의 과정

「무정」은 6월부터 8월까지 한 달 보름 동안에 걸친 이야기이다. 그러나 실제로 영채가 황주에서 보냈던 한 달이란 기간은 그녀가 낡은 사고를 버리고 새로운 의식에 눈뜨고 재충전하는 기간으로 시간상으로는 의미가 없는 기간이며 실제로 사건이 전개된 시간은 황주 이전의 닷새, 황주 이후의 이틀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날, 형식은 선형을 영어 가정교사로서 처음 만나고 바로 그날 저녁 영채의 방문을 받는다. 그 이튿날 형식이 다니는 학교에 동맹휴학이 일어나고 그날 저녁 선형을 가르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그날 밤 영채는 배화감에게 겁탈당한다. 그 다음날 영채는 유서를 써놓고 평양으로 떠나고 4일째 되는 날 형식은 저녁차로 서울로 올라가 버린다. 5일째 되는 날 형식은 학교에 사표를 쓰고 선형과 약혼한다. 그리고 나서 한 달여, 그 기간은 영채가 황주라는 공간에서 재생의 의지를 다지는 잠정적인 휴식기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영채, 선형, 형식이 만나고 삼랑진에서 극적인 화해를 한다. 일련의 사건들이 마치 시간이라든가 쫓기듯이 7일도 안되는 기간에 일어났는데 그 주요한 일의 요체는 형식과 선형, 영채와의 사랑과 갈등, 화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무정」에 대한 평가는 주로 삼랑진 장면에 비중이 두어져 왔다. 따라서 그 주제가 1910년대 지식인들의 시대적 각성과 고뇌로 여겨져 왔다. 이 과정에서 세 주인공의 사랑은 주로 구시대와 근대의 갈등을 읽어내는 쪽으로 해석이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런 해석의 방식은 지금까지 소설 연구자들이 소설에 나타나는 남녀의 사랑을 해석하는 가장 점잖고 세련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무정」을 텍스트에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없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 내려가면 이 작품이 청춘남녀의 사랑 배우기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17년 1월 1일 『매일신보』에 연재된 「무정」의 첫 장면에서, 작가가 경성학교 영어교사인 이형식이 김장로의 딸 선형이를 가르치러 가면서 가슴설레하는 심리를 그린 것은 시사적이다.

이형식은 아직 독신이라, 남의 여자와 가까이 교제하여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순결한 청년이 흔히 그러한 모양으로 젊은 여자를 대하면 자연히 수줍은 생각이 나서 얼굴이 확확 달며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가운데 책상을 하나

놓고 거기 마주앉아서 가르칠까. 그러면 입김과 입김이 서로 마주치렸다. 혹 저편 히사시가미(양갈래로 댄 머릿단)가 내 이마에 스칠 때도 잊으렸다. 책상 아래에서 무릎과 무릎이 가만히 마주 닿기도 하렸다.……형식은 아뿔사! 내가 어찌 이런 생각을 하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하던가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전신에 힘을 주어 이러한 약한 생각을 떼어버리려 하니 가슴속에는 이상하게 불길이 확확 일어난다.¹⁸⁾

처음 만나는 이성이자 제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고민하면서도 가슴 설레하는 순진한 남성의 심리가 눈에 잡힐 듯이 그려져 있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형식이 아직 사랑의 세례를 받지 못한 청년임을 알 수 있다. 소설의 첫머리에서 아직 사랑을 알지 못했던 이 청년은 그날 하루 동안 선형과 영채 사이에서 번민하며 고뇌하게 된다. 선형 또한 아직 사랑의 세례를 받아보지 못한 처지라는 점이 소설의 앞부분에서 강조된다.

그는 아직 큐피드의 화살을 맞지 아니하였다. 그의 가슴에는 아직 인생이란 생각도 없고 여자 남자라는 생각도 없다. 그는 전세계는 다 자기의 가정과 같고 천하 사람은 자기와 같거나 한다. 아니, 차라리 전세계가 자기네 가정과 같은지 천하 사람이 자기와 같은지 아니 같은지 생각하여본적이 없다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로다. 그를 봄철 따뜻한 아침에 핀 꽃에 비길진대 그는 아직 바람도 모르고 비도 모르고 늙음도 모르고 시들어 떨어짐도 모르는 바로 핀 꽃이라¹⁹⁾

작가는 이런 그녀의 상태를 순결하고 청정하나 아직 ‘참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랑이란 인간의 진정한 감정이고 이 감정을 깨닫지 못한 자는 인생의 참의미를 깨달은 자가 아니다. 그녀가 ‘문명한 나라’에 태어났다면 시와 소설과 음악과 미술의 이야기로 인생의 세례를 받아 ‘참말 인생인 한 여자가 되었을 것이나 조선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히 완전한 인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8) 이광수, 「무정」, 『한국 소설문학대계』 2(동아출판사, 1995), pp.11~12.

19) 앞의 책, p.89.

이런 상태의 청춘 남녀들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차츰 사랑에 눈 떠간다.

그러나 무론 선형이가 형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이삼 일내로 사랑이 생길 까닭이 없을 것이다. 장차 어떤 정도까지 사랑이 생길는지 모르거니와 적어도 아직까지는 사랑이 생긴 것이 아니다. 형식이나 선형이가 피차의 성질을 모를 것은 물론이다. 형식이 선형을 사랑하는 것도 다만 아름다운 꽃을 사랑함과 같은 사랑이다. 보기에 사랑스러우니 사랑하는 것이다. 극히 겉테기 사랑이다. 눈과 눈의 사랑이요, 얼굴과 얼굴의 사랑이다. 피차의 정신은 아직 한 번도 조금도 마주 접하여 본 적이 없었다.(중략) 다만 김장로 양주와 한 목사만 이 두사람의 속을 잘 알거니 한다. 무론 이 두사람 이 피차에 아는 것만큼도 모르건마는 그래도 자기네는 이 두 사람의 속을 잘 알거니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부부 된 뒤에 행복될 것은 확실하거니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을 마주 붙인다. 다만 자기네 생각에, 그 미련하게 얇은 생각에 좋을 듯하게 보이므로 마주 붙인다. 그러다가 만일 이 부부가 불행하게 되면 뜨네는 자기네 책임이라 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의 책임이라 하거나 또는 팔자라, 하느님의 뜻이라 할 것이다. 이 모양으로 하루에도 몇천 켤레 부부가 생기는 것이다.²⁰⁾

위의 인용문에는 작가가 비판하는 두 종류의 애정관이 드러난다. 첫째는 육욕적인 사랑과 둘째는 형식적 여건의 일치로 인한 사랑이다. 형식이 선형에게 처음 끌린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그녀의 자태에 끌린 것뿐이다. 그녀의 정신에 대해 깊이 생각함이 없이 겉껍대기의 모습을 사랑한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형식은 열정(passion)이나 직접적인 육욕(sexuality)을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전형적인 낭만적 사랑의 양태를 주장하고 있다.²¹⁾

그리고 여기에 처음부터 여러 여건-유학을 가야 하므로 영어에 능한

20) 앞의 책, p.251.

21) Niklas Luhman, *Love as Passion*(Harvard Univ. Press), 1986, p.23.

인격자여야 한다는 등-에 맞는 형식을 신랑감으로 점찍는 형태, 즉 전형적인 중매혼(우애혼)의 양식이 가세한다. 사실 형식과 선형의 결혼 양태는 김장로의 한·양 절충의 형식과 유사한, 어설뿐 개화풍경의 하나일 것이다. 김장로는 자신의 딸을 미국 유학을 보내기 위해 보호자로서 남편감을 구하던 중 영어 잘하고 성실한 교인인 형식을 사윗감으로 점찍는다. 그러나 그야말로 요즈음 풍속, 신식혼인의 풍속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므로 영어교습을 빙자하여 얼마간 교제시켜 본 뒤 약혼을 성사시킨다. 이것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서 종래의 혼인제도와는 형식상으로 다소 다르나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임을 작가는 수차에 걸쳐 설명한다. 이성과 교제의 경험이 없었던 형식이 돈많은 미인인 선형에게 호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선형은 이날이때까지 부모의 말을 거역해보지 못했던 처녀이다. 두 사람이 어른들 앞에서 혼인을 반대할 상황이 못되는 것이다.

이 정황은 형식과 선형을 놓고 김장로 부부와 목사가 서로의 혼인 의사를 묻는 장면에서 그 회화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걸개화의 한계가 신소설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드러났다면 「무정」에서 의식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 소설이 자유연애에 관한 한 신소설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임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다방면에서 완전하게 결합을 이룰 수 있는 타인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서 이 상대와 우연히 만나 감정상으로 자연스럽게 끌리는 낭만적 사랑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들은 '참된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민한다.

형식은 선형에게 대하여서나 영채에 대하여서나 아직 참된 사랑을 가져 보지 못하였다. 대개 형식의 사랑은 아직도 외모의 사랑이었다. 형식은 선형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선형의 성격(性格)은 한 짚도 몰랐다. (중략) 아직 문명하지 못한 민족들이 다만 고운 얼굴만 보고 곧 사랑이 생

기는 것과 같은 사랑이었다. 다만 한 가지 다름이 있다 하면 문명치 못한 민족의 사랑은 곧 육욕(肉慾)을 의미하되 형식의 사랑에는 정신적 분자가 많았을 뿐이다. 그러니 형식은 다만 정신적 사랑이라는 이름만 알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었다. 진정한 사랑은 피차에 정신적으로 서로 이해(理解)하는 데서 나오는 줄을 몰랐다. 형식의 사랑은 실로 낡은 시대, 자각 없는 시대에서 새 시대, 자각 있는 대로 옮겨가려는 과도기(過渡期)의 청년-조선 청년-이 흔히 가지는 사랑이나 자기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인 줄을 깨닫는다 하면 형식의 전도에는 대변동이 일어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²²⁾

한 개인의 내면의 사랑, 육욕과 영욕의 분리라는 점에서 「무정」이 추구하는 사랑은 전형적인 낭만적 사랑(amour 혹은 romantic love)의 범주에 속한다. 낭만적 사랑이란 개념은 19세기의 산물로서 그것은 개인주의와 세속적인 양상이 두드러진 문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문화로부터 탄생되었다. 근대 이후 인간은 개인의 권리의 개념을 발견했는데 개인주의는 인간관계에 혁명을 가져다준 창조적 개념이었다. 이에 맞추어 문학에는 낭만주의의 운동이 일어났다. 낭만주의는 개인주의에 입각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자유로운 존재이며 그 자신이 목적이라고 믿었다. 또 낭만주의는 인간의 삶이 외적 요소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섬기는 가치관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믿었다.²³⁾

이런 사고가 사랑에 투영될 때 낭만적 사랑에는 첫눈에 반하는 것,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영혼까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객관적, 외적 조건이라기보다는 자신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독특한 속성에 의한 것이라는 일변 모순되어 보이면서도 개성존중이라는 측면에서 공통되는 특성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형식은 선형이나 영채를 객관적인 조건 즉 외모나 지위에 의

22) 앞의 책, pp.324~325.

23) Nathiel Brandden(안정효 역), 『낭만적인 사랑의 심리학』(샘터사, 1938), pp.38~43.

해 판단하고 호감을 가진다. 선형의 아름다움과 지위에 동경을 가졌고, 영채에게서는 외모에 어린 시절의 정과 은인에 대한 의리가 덧붙여진다. 형식이 돌을 놓고 갈등할 때도 비교의 조건으로 등장한 것은 용모와 지위였다. 그는 영채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도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주저하였고 또 박진사를 생각하면서 당연히 그의 딸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고민했다.

선형의 경우는 처음에 형식에 거의 애정을 지니지 못하다가 부모님의 결정에 의해 그를 사랑하도록 노력한다. 그 와중에서 곤경에 처해 고민하는 형식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 그러나 이런 감정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뛰어들어 건져 주겠다는 생각이 나는 것과 같은 동정일 뿐이다. 이것은 오래가지도 않을 뿐더러 사랑이 될 수는 없다. 작가는 단호한데 부부간의 사랑은 이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저 사람이 살아야 나도 산다. 저 사람이 행복되어야 나도 행복된다. 저사람과 나와는 한몸이다…… 이러한 사랑이라야 한다”는 감정이야말로 참감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채는 어떠한가? 그는 병욱에 의해 비로소 자신의 사랑이 스스로의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닌 공동체 윤리, 의리로서의 사랑이란 것을 깨닫는다. 병욱은 영채가 어린 시절 ‘부친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고려해볼 여지도 없이 형식에 집착해왔음을 지적한다.

“행복이 기다릴까요! 그러나 의리는 어찌합니까, 의리는 어기고 행복을 찾으려요. 그것이 옳을까요?” 하며 마음을 정치 못하여 한다.

‘의리? 영채 씨께서 죽으시는 것이 의리 같습니다?’

“의리가 아닐까요?”

“어찌해서 의릴까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허하였다가 그 사람에게 몸을 바치기 전에 몸을 더럽혔으니 죽어 버리는 것이 의리가 아닐까요?”

옳다, 되었다 하는 듯이 여학생이,

“그러면 몇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 이씨에게 마음을 허하신 것이 영채 씨오니까. 다시 말하면 영채 씨가 당신의 생각으로 마음을 허한 것입니까,

또는 부친의 말씀 한마디가 허한 것입니까?”

“그게야 무론 아버지께서 허하신 게지요.”

“그러면, 부친의 말씀 한마디로 영채 씨의 일생을 작정한 것이오그러.”²⁴⁾

어떤 제도나 도덕도 개인의 감정에 우선할 수 없다는 주장, 개인의 판단과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병욱은 영채가 자신의 주관적 감정에 의해 사랑을 할 것을 권유한다. 이에 영채는 자신이 ‘독립한 사람이 아니요, 어떤 도덕률의 한 모형’임을 자각한다. 그녀는 작가의 표현대로 지금까지 형식을 ‘사랑’한 적은 없었고, 다만 가상적인,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형식이라고 짓고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순수한 사랑’이 성립할 수 있느냐는 원론적인 모순은 있으나 아무튼 낭만적 사랑은 근대 이후 근대인들을 지배했던 애정관, 결혼관의 토대를 이루었고 영채는 ‘사람의 감정’에 충실한 여성이 되어간다.

우선 또한 처음에는 영채의 외모에 호감을 느꼈으나 영채의 깨끗함과 정절을 보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구식부인과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고 그 헛헛한 마음을 기생집을 드나들며 달랜 처지이다. 처음에는 아내란 존재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아이나 낳고 살림을 하는 존재이고 기생은 자신의 율욕을 충족시켜주는 존재로 생각하였으나, 영채를 본 후 진정한 사랑은 영과 육의 조화임을 깨닫고 고뇌한다.

열차에서 영채와 마주친 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선행은 질투를 배우고 고통과 미움 속에서 동정보다는 한층 ‘사랑’에 접근하는 감정들을 배워나간다. 그녀의 감정이 영채와의 비교, 경쟁심일지라도 그것은 사랑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독점욕인 때문이다.

따라서 ‘삼랑진 장면’은 작가의 사상을 드러내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민족의식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 속에 함몰시킨 미봉책일 뿐인 것이다. 작가는 소설의 서두부터 제시해온 근대적 사랑의 문제를 급박한 시대상황과 지식

24) 앞의 책, p.274.

인의 의무 뒤에 가두어 버림으로써 참다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고민하는 형식과 선형, 서서히 사랑에 눈 떠가는 신우선과 영채의 문제를 정면에서 해결하지 않고 두어버렸다.

2) 일부일처제의 속죄양 : 월화 죽이기와 영채 죽이기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랑은 하나의 놀이, 즐거운 장난이었다고 한다. 귀족들에게 유희와 간통은 심심풀이를 위한 여흥이었다. 남성에게 있어 여성은 가문을 잇고 집안을 관리하는 존재로서의 안주인과 놀리고 조종하고 데리고 놀거나 유희하는 대상으로서의 매춘여성의 부류로 선명하게 나누어져 있었다.

이런 외중에서 기생이란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였을까? 어문각판 사전에 의하면 기생은 “술자리 같은 데서 노래나 춤을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계집”으로 되어 있다. 기생이 천한 신분이었고 한 지아비를 모시지 못하는 한스러운 존재인 것은 확실하나 없어져야 할 존재는 아니었다. 더 나아가 오히려 근대적 사랑의 의미에 가까운 사랑을 한 이들은 오히려 기생이었는데 예를 들면 황진이가 서화담, 벽계수와 어떤 형태로든 주고 받은 사랑은 설화와 시조 등을 통하여 문학적으로 이름답게 채색되어 왔다. 당대 사회의 윤리관내에서 기생과 처자 있는 양반과의 교류는 그리 큰 흠이 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근대의 낭만주의 사랑에 입각한 일부일처제가 엄격히 적용될 때, 이 기생이란 존재는 없어져야 할 존재, 소멸되어야 할 존재 외에 어떤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다. 첫눈에 반하면서도 그 사랑이 평생 유지되어 결혼으로 이어지는 낭만적 사랑의 속성에 비추어 기생의 존재는 남성들의 육체만의 사랑, 천박한 쾌락을 대변하는 상징적 대상물이 된다.

이제 기생을 찾아다니는 인물은 교육자를 빙자하며 권세가의 비위를 맞추는 배학감 같은 비열한 인물이거나, 애정 없는 구식결혼의 희생자 신우선 같은 인물들이 있을 뿐이다. 반면 근대교육을 제대로 받은 패성

학교 학생들이나 함 교장, 형식 같은 인물은 기생을 육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조선사람도 구시대의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외치는 함 교장과 그의 가르침을 받은 패성학교 학생들의 애정관은 다음의 구절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학생들도 만일 월화를 본다면 ‘어여쁘다’하는 생각이 날지도 모르고 ‘한번 더 보자’하는 생각이 날지도 모르거니와 그네는 결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저것을 하룻밤 데리고 놀았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한다. 또 설혹 그네가 ‘저것을 내것을 삼았으면’하는 생각이난다 하더라도 결코 다른 사람과 같이 회롱하려함이 아니요 ‘나의 아내를 삼아 사랑하고 공경하리라’함이다.²⁵⁾

이 개화청년들은 외면적으로는 월화를 인격적으로 보아주고 있고 이것은 그들의 정결성, 도덕적 우월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월화는 기생의 신분이다. 그들이 월화를 인격적으로 보면 볼수록 원래가 ‘하룻밤 데리고 노는’ 대상인 월화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더욱 비천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생이 된 것이 전혀 그녀의 뜻이 아니었고 그녀가 단지 남성의 육체적 욕망의 희생물일지라도 그 표현은 삼시간에 동전의 다른 면과도 같이, 남성의 욕망을 상징하는 존재로 대치될 수 있다. 근대의 일부일체제의 이데올로기는 공식적으로 기생과 같은 존재를 허용할 수 없다. 더구나 월화는 교육자이며 당연히 처자가 있을 함 교장을 흠모하는 죄까지 저지른 몸이다. 비난받아야 할 것은 육육이라는, 사랑의 타락한 형태였으나 벌을 받은 것은 월화였다.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그나마 비극적인 여인으로 독자에게 기억된다.

이 벌은 실제로 영채에게도 내려진다. 형식이 영채의 이야기를 듣던 중 악한에게 납치되는 사실을 듣는 순간 ‘아무려나 영채의 몸이 그 악한에게 더럽혀지거나 아니하였으면’이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이 생각이 단순히 영채의 안위를 염려해서 떠오른 것이 아님은 다음 순간

25) 앞의 책, p.108.

분명해진다.

저 계집이 이때까지 누군지 알 수 없는 수없는 남자에게 몸을 허하지나 아니하였는가. 지금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저 입으로 별의별 더러운 남의 입술을 빨고 별의별 더러운 남의 마음을 호리는 말을 하던 입이 아닌가 지금 여기 와서 이러한 소리를 하고 가장 얌전한체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육칠년전의 애정을 이용하여 나를 휘어넘기려는 흘계가 아닌가²⁶⁾

형식에게 영채의 인격, 정직함은 다른 남자에게 몸을 허하지 않은 것과 동일선상에 놓인 것이다. 즉 육체적으로 순결하지 않은 여자는 반드시 정신적으로도 순결하지 않다는 논리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구절이다. 이어서 형식은 육체적으로 순결함이 틀림없는 선형이 ‘얼굴도 아름답거나와 마음조차 아름다운 처녀’라고 둘을 비교한다. 그리고 이 의심은 영채가 그 위기를 무사히 넘었음을 이야기하는 순간 풀린다.

이런 영채가 김현수에게 겁탈당하는 장면을 간접적으로 목격한 형식은 번민에 빠진다. 은인의 딸을 아내로 삼으려는 생각은 사라지고 영채가 과연 지금까지 처녀로 남아 있었을까를 의심하며 또다시 순결한 선형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해진다. 물론 잠깐 동안 자신이 영채와 같은 상황에서 절개를 지킬 수 있을까, 순결을 잃은 것은 영채의 죄가 아니라는 생각도 했으나 그렇다고 번민이 풀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제는 영채는 처녀가 아니로다’라는 엄연한 사실을 결론으로 자신의 번민을 수습해 나간다.

이 상황의 해결책은 당연히 ‘더럽혀진 몸’의 제거, 영채의 자살일 것이다. 영채는 유서를 써놓고 평양으로 자살하러 떠난다. 작가가 영채를 죽이려 했는가 아니면 의도된 반전이였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동인의 견해가 시사적인데 그에 의하면, 이광수가 구시대 가치관을 가진 영채를 비판하려 했으나 너무 그녀를 미화시킨

26) 앞의 책, p.39.

나머지 독자들의 성화 때문에 병욱을 급조해내어 영채를 살렸다고 주장한다. 원래 「춘원연구」는 춘원을 비판하기 위해 쓰여진 만큼 그의 주장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으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만큼 작가가 영채의 처리를 놓고 고심했다는 것이다. 영채라는 인물은 작가의 자전적 체험에서 우러나온 인물이고 선형은 작가의 이상과 논리에서 나온 인물이다. (소설을 쓸 당시 이광수는 아직 소위 신여성과 본격적이고 심각한 연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자가 그만큼 현실성 있고 애정이 묻어 있는 인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가로서는 어떻게 하든 영채를 살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작가가 영채와 형식을 결합시키려하지 않은 논리로 ‘순결의 상실’을 내세웠다는 점이다. 영채는 여하간 이광수의 결혼 이데올로기에 배치되는 인물이다. 작가는 영채를 겁탈당하게 함으로써 순결한 두 남녀(적어도 순결한 여성이)가 첫눈에 끌려 평생을 지속시킬 사랑을 해야 하는 낭만적 사랑의 논리에 이미 그녀를 제외시킨 것이다. 이 사실은 작가가 영채가 겁탈당하는 장면을 쓸 때, 이미 그녀와 형식의 결합을 포기했음을 의미한다. 당대 독자들이 영채를 살리라는 성화는 많이 하였겠지만 과연 영채를 형식과 결합시키라는 요구를 했는지 의문이다. 월화가 대동강에 몸을 던졌다면 영채 또한 ‘남자에게 사랑을 받을 몸’을 대동강에 던져버렸다. 소설의 결말에서 영채는 독신으로 동경 음악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온다. 결국 영채의 몸은 근대적 사랑을 정립하기 위한 대상으로 소모되고 만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사랑’이 전시대에 비해 어떻게 변모되고 제도로 정립되는가를 보는 과정에서 1910년대 근대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근대적 사랑의 특징인 ‘낭만적 사랑’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가를 봄으로서 성(gender)의 문제에 접근해 보았다.

전근대적 사랑은 공동체 윤리로서 법의 차원으로 미분화되어 성립하는 반면, 근대의 사랑의 논리는 개인의 사적영역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개화기와 1910년대에는 전근대의 윤리관을 본질적으로 탈피하지 못한 연유로 '사랑'의 문제가 지식인들의 근대화 추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조선시대 계층은 생득적으로 형성되었고 따라서 결혼제도 또한 이 생득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중매혼, 집안대 집안의 결혼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개화기 이후 천부인권설의 역설 교육의 보급으로 양반/상민의 계급구분은 와해되고 귀족적 지위가 후천적 능력에 의해 획득되는 근대사회가 형성된다.

지식인계층은 이렇게 형성되었으며 낭만적 사랑에 의거한 자유연애 결혼은 이들이 채택한 새로운 결혼제도였다. 그리고 이들의 이데올로기를 이론화시킨 대표적 인물이 이광수였으며, 그는 과거 양반들의 성적욕망의 체제 및 방식, 혈종유지를 위한 혼인과 욕망해결을 위한 기생계층의 이용을 철저히 비판함으로써 지식인계층에 걸맞는 성적욕망을 재정립할 토대를 만들고 있다.

이때 사랑은 지극히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남성과 동일한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은 결혼 전에는 남성의 연대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존재로 결혼 후에는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존재로 규정된다. 이 이데올로기는 「무정」에 잘 드러나 있다.

참고문헌

- 김영모, 『한국 지배층 연구』, 일조각, 1982.
 김승욱 편, 『아껴 무엇하리 이 청춘을』, 독서, 1979.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9.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한길사, 1986.
 김중욱 편, 『나혜석-날아간 창조』, 신흥출판사, 1981.

- 와세다 대학 우리동창회, 『한국유학생운동사』.
- 이광수, 『무정』, 『한국 소설문학대계』 2, 동아출판사, 1995.
- 이구열, 『에미는 선각자였느니라』, 동화출판공사, 1974.
- 이상현, 『달뜨고 별지면 울고싶어라』, 국문, 1981.
- 임종국·박노준, 『나혜석편』, 『홀리간 성좌』 2, 국제문화사, 1996.
- 김영모, 『일제하 사회계층의 형성과 변동에 관한 연구』, 『일제하의 민족생활사』, 현암사, 1982.
- 김인덕, 『학우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66집, 1995.12.
- 백승대, 『지식사회학의 새로운 정향과 하버마스의 근대성 논의』,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1996.2.
- Brannen, Nathiel(안정효 역), 『낭만적인 사랑의 심리학』, 샘터사, 1938.
- Bourdieu, Pierre(최종철 역),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1995.
- Habermas, Jurgen (장은주 역), 『의사소통의 사회이론』, 관악사.
- Luhman, Niklas, *Love as Passion*, Harvard Univ. Press, 1986.
- Weintraub, Jeff and Krishan Kumar(edited by), *Public and Private in Thought and Practice*, The University of Cicago Press, 1997.

1910~20년대 잡지, 신문.